

다향오리

**‘누룽지백숙’ 간편 양식 출시
진공포장 · 조리 간편성 높였다**



다향오리는 초복(7월12일)을 맞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 보양식 ‘누룽지백숙’을 출시했다. ‘누룽지백숙’은 비타민 A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인 오리고기를 주 재료로 만든 백숙이다. 다향오리가 직접 키운 100% 국내산 오리로 육수를 낸 진한 국물에 쫄깃한 오리 통다리가 들어 있어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아낸다. 또한 국내산 찹쌀 누룽지가 함께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조리의 간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오리 통다리, 찹쌀 누룽지, 오리진육수를 개별 진공 포장해 원재료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오리육과 찹쌀의 영양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정다운

**오리고기 제조방법 특허 취득
사료첨가제 개발에 사용**



정다운은 오리고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사료첨가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7월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라디컬 소거능을 가지는 황산화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다양한 식품,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프레

‘동물복지 요리대회’ 참여 동물복지 홍보활동 ‘큰 호응’



동물복지 인증기업 참프레는 ‘동물복지 요리대회’ 행사에 참여해 동물복지 홍보 활동을 진행,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동물복지 요리대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최하고 요리연구가, 인기 셰프, 소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올라온 20팀이 본선 요리 대회 경연을 펼쳤다. 이 가운데 참프레는 동물복지 기업으로 행사에 참여,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 제품시식은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아직 생소한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활동과 이벤트를 마련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조화인
코리아

보양식 1천명분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전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주)사조화인코리아(대표 이창주)가 보양식 1천명분을 사회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32개소의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주)사조화인코리아의 기부는 초복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과 삼계탕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창주 대표의 사랑 나눔 정신에서 비롯됐다.

또한 최근 6월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 발생을 막아내기 위해 애써 준 닭·오리 사육농가들과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의 뜻도 담겨 있다.

(주)사조화인코리아는 오리고기, 삼계탕, 닭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말에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